

“여호와의 기업”

신명기 6:4-9

오늘은 가정의 달의 시작이며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은 “자신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들으라 이스라엘아!’(4 절)로 시작합니다. 들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Shema)’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쉐마는 이스라엘 신앙 교육의 대명사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또 성경은 무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 6:7)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할까요?

1. 인간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에게 인간의 삶 중에서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에 대한 차이를 가르쳐야 합니다.

누가복음 16 장에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부자는 일시적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유한 물질은 일시적인 것이며 언젠가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신앙 안에서 가져야 할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눈 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2.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에서 신앙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학문에 탁월하다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 바로 서 있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한 자녀 교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있는 부모들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말은 ‘예수 잘 믿어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 잘 믿는 것, 즉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와 십일조에 대해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습니다. 또한 십일조는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안에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부모들이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한다면, 자녀들도 똑같이 고민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3.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사랑만으로 키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신앙적으로 훈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무조건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엄하게 그들의 잘못을 훈계해야 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 13:24)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를 징계하지 않았습다. 죄의 길로 걸어가는 두 아들을 방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홉니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들고 나가서 싸우다가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앉아 있던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과 동시에, 자녀를 징계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잠 29:17)

4. 원칙에 엄격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원칙에 대해서 엄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가치관과 인생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가치 즉 정직과 예의, 도덕과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정직과 성실보다는 요령과 타협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녀에게 독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정직과 순결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게으르고 나태한 것에 대해서도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성실하지 않고 나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고, 믿음으로 양육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책 중,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부모의 은혜’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데, 도리어 우리도 ‘자식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자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안에서 양육했는지, 또는 모범적으로 신앙안에서 양육하는 가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봅시다.

2. **(자녀가 아직 어린 가정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신앙적으로 어떻게 자라길 원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자녀가 장성한 가정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장성했지만, 그들이 더 노년이 되었을 때는 어떤 신앙인들이 되길 소망하는지, 또 손자/손녀들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자라길 소망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